

아프리카 거점국가 개발 및 활용방안:
FTA를 중심으로

2004.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 영 호

제1장 아프리카경제의 일반적 특성

1. 경제적 특성

가. 경제규모의 영세성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위상은 매우 미미함.
 - 이집트와 리비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51개국의 세계 경제적 비중은 고작 3.2%로 인도(4.6%) 단일국가보다도 작음.
 - 이것도 사하라이남지역에 위치하며 통상 블랙아프리카(Black Africa)로 칭하는 48개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중은 더욱 크게 낮아져 2.4%에 지나지 않음.
- 아프리카 51개국의 수출비중 역시 개도국 및 세계전체의 각각 10%와 2%대로 중동 16개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아프리카의 수입시장 또한 절대적인 규모는 물론 여타 개도권 지역과 비교한 상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영세성을 보이고 있음. 아프리카시장의 이러한 영세성은 저소득과 경제발전의 후진성에서 비롯되고 있음.

나. 단일작물형 산업구조

- 아프리카제국은 그 동안 공업화와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정책을 의욕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오늘날 아프리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특징은 산업구조의 낙후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프리카의 공업화는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자본 및 기술인력의 절대적 부족, 경제운영의 경험부족과 관리능력의 부재, 비합리적인 관료제도, 부정부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아프리카제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비중이 전세계 평균(21%)은 물론 저소득경제국 평균수준(18%)을 넘는

국가가 전무함.

- 산업구조의 근대화 수준을 가늠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이처럼 낮은 사실은 아프리카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후진성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산업구조의 낙후성으로 인해 아프리카경제는 원유, 광산물 및 농작물 등 1차산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1차산품 중에서도 2-3개 정도의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노컬처(mono-culture)”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선진국경제의 호조에 따른 1차산품의 수요증대로 아프리카제국은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전반이 기후변화와 국제상품시세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등 아프리카경제의 지속성장에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후진적인 교역구조형태로 인해 세계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다. 유럽 의존적 교역구조

□ 아프리카제국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선진국들의 장기 식민통치로부터 1960년대를 전후하여 독립하였으나 아직도 이들 식민종주국과의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아프리카제국의 교역구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가 식민시대부터 식민종주국의 원료공급시장과 공산품 수출대상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음.
-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단연 서유럽지역으로 아프리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국가들은 유럽지역에 대해 1차산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 교역형태를 이루고 있음.
- 또한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의 결과로 형성된 상거래 관행과 상품유통 구조상의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구식민종주국들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지니고 있는 시장지배력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구축되어 있음.

2. 경제 환경의 변화

가. 성장가능성

- 아프리카대륙의 경제적 변화의 조짐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역동적 경제성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장기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연도별로 커다란 부침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99년을 제외하고는 3%대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1996년에는 주력 수출소득원인 유가 및 1차산품의 국제가격 인상,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수출증대, 양호한 기후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20년만에 최초로 세계 평균성장률(4.0%)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더욱이 1998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개도국과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아프리카경제는 3%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부각시켜 주었음.
- 2001년~2003년에도 3~4%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으로써 아프리카도 그 동안의 경제적 낙후에서 서서히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음.

나. 지역경제협력 강화

1) 아프리카연합(AU) 창설과 NEPAD의 출범

- 아프리카대륙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의 실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아프리카도 거대 지역공동체 결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아프리카국가들이 주창해 온 정치적 자주화와 지역경제블럭 형성 등을 통한 “아프리카의 르네상스”, “아프리카 새질서 모색”이라는 새로운 흐름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2001년 7월 잠비아 수도 루사카(Lusaka)에서 개최된 제37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53개 회원국들은 新아프리카 이니셔티브(New African Initiative)를 채택하고 향후 1년 이내에 기존의 OAU를 AU로 발전, 공식 출범키로 최종 합의하였음.
 - OAU는 반식민주의 및 국가주권 확보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AU는 EU와 같은 정치, 사회·경제적 통합 등 초국가적 기구를 지향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하고 있는 AU의 출범은 아프리카통합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분쟁방지 및 해결, 빈곤 및 질병 퇴치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AU는 아프리카대륙의 정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아프리카통합을 위한 아프리카제국의 의지를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물론, AU가 지향하고 있는 EU수준의 경제통합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해 있어 실현여부와 그 시기를 가늠하기조차 불가능한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오늘날 아프리카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AU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할 것임.
- NEPAD(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는 1999년 이후 아프리카의 여러 지도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한 아프리카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플랜을 통합한 종합적 발전계획임.
 - NEPAD는 아프리카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아프리카가 변방화 되는 것을 막아내며, 아프리카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NEPAD는 아프리카연합(AU)의 제도적 틀 안에서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아프리카에서 국민 중심의 지속 가

- 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NEPAD는 경제발전과 고용증대, 빈곤과 불평등의 축소, 생산 활동의 다양화,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 그리고 아프리카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AU와 NEPAD는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지금까지 시도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아프리카단결기구 및 여타 개발프로그램과 차별화되고 있음.

2) 동아프리카공동체(ECA): 케냐 · 우간다 · 탄자니아

- 중동부지역 3개국(케냐 · 우간다 · 탄자니아)은 그 동안 회원국간 이념적 차이와 상반된 이해관계로 지난 1977년 해체되었던 EAC(East African Community)를 다시 부활, EAC¹⁾ 설립조약 체결(1999년 11월) 및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2000년 7월부터 공식 발효함으로써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EAC는 오는 2004년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역내국간 자유무역 달성과 궁극적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 형성, 단일통화 사용 및 통화동맹(Monetary Union) 등 EU를 모델로 한 완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CA 출범에 따라 향후 관세동맹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국간 무관세는 물론 역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단일 역외관세율, 단일 통관절차 및 통관서류 등 완전 시장통합으로 발전하게 됨.
- EAC협정은 협정이행상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비대칭 원칙(Principle of Asymmetry)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협력구도하에서 상이한 속도와 규모로 합의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산업발전단계가 낮은 회원국(특히 탄자니아)의 우

1) 명칭이 East African Community에서 East African Cooperation로 바뀜.

려사항을 고려한 조치인 바, 결국 협정이행에 따른 혜택의 배분 정도가 EAC의 발전속도와 장래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임.

3) 동남부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COMESA-FTA)

□ 지난 1993년부터 줄곧 논의되어 온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내 자유무역지대가 마침내 2000년 11월 1일부로 출범함으로써 이 지역의 역내교역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회원국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同자유무역지대는 COMESA 회원국(21개국) 가운데 우선적으로 이집트와 케냐를 비롯한 9개 회원국들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들 국가들간의 관세가 2000년 11월 1일부로 전면 철폐되었음.²⁾
- COMESA-FTA 창설의 주요 합의내용은, ① 2000년 11월 1일부로 9개 회원국간 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따른 모든 관세는 물론 수입허가제, 수입할당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 ② 2000년말까지 무비자 입국 허용 ③ 2004년까지 기술인력의 회원국내 자유로운 취업 허용 ④ 2014년까지 회원국내 거주지역 자유선택 보장 ⑤ 2025년까지 공동중앙은행에 의한 공동화폐의 사용 등을 담고 있음.

□ COMESA-FTA 출범은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981년 무역자유화와 산업협력을 목표로 탄생한 기존 PTA(특혜무역지대: Preferential Trade Area)가 이 지역의 역내경제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체하고 보다 강력한 경제통합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

□ COMESA는 현재 21개국의 회원국에 2억 5천만 인구, 1,700억달러(1998년)의 경제규모(GDP)로, 연간 150억 달러 수입과 110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대시장으로써 同자유무역지대 출범은 지역경제협력체로서의 COMESA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켰으며, 나아가 아프리카의 경제통합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임.

- 회원국간 경제규모, 산업발전 수준 등에 있어 커다란 격차로 보이고

2) COMESA-FTA 출범에 합의한 9개국은 이집트를 비롯한 케냐·수단·짐바브웨·모리셔스·지부티·마다가스카르·말라위·잠비아임.

있어 응집력 있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同자유무역지대 출범은 COMESA를 2025년까지 완전한 지역통합 및 단일통화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아랍-지중해 자유무역지대 창설 추진

□ 모로코·튀니지·이집트·요르단 등 지중해권 4개국은 2001년 5월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아랍-지중해 자유무역지대 (Arab-Mediterranean Free Trade Zone)"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을 담은 일명 「Agadir Declaration」 서명하였음.

- 그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관한 4개국간 실무전문가그룹 설치·운영, 정기적인 전문가실무그룹 회의개최 및 이를 통한 자유무역설립에 관한 협정문 작성, 전문가실무그룹의 결과보고 평가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바, 동 회담은 향후 북부아프리카·아랍지역의 공동시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들 4개국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호 경제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EU와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향후 10년 안에 EU와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나아가 자유무역지대를 나머지 아랍-지중해국가들(알제리·리비아·모리타니·레바논·팔레스타인)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지중해 아랍권의 경제통합이 확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5) 기타 경제협력체

□ 이외에도 아프리카에는 다수의 경제통합체가 존재하고 있음. 아프리카제국은 독립 직후부터 경제통합을 활발히 추진해 온 결과,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등 40여개의 경제통합체가 형성되었음(표 1 참조).

- 아프리카국가들 간에는 오래 전부터 적게는 3개국에서부터 많게는 20개국에 이르는 국가들을 단위로 자유무역지대에서부터 관세동맹, 나

아가 금융·통화동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공동체를 추구하는 지역경제협정이 체결되어, 소지역 차원의 통합이 진행되어 왔음.

- 이러한 소지역 통합은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참여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생산활동의 효율성 증대, 금융·통화정책 조정을 통한 성장 촉진 등 효과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단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음.
- 아프리카국가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경제통합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제통합이 자국의 불리한 경제적 여건과 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음.
- 아프리카 각국은 통합에 따른 산업경쟁력 향상, 역내무역 확대 등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나아가 지속적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형태의 경제적 통합은 2국간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아프리카대륙의 단일시장 형성을 진일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아프리카경제의 활발한 통합 움직임은 그 만큼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제통합체는 우리의 대 아프리카시장 진출에 있어 거점지역으로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표 1> 아프리카 지역공동체 현황

명 칭	출범시기	회원국	주요 목표
The Arab Maghreb Union (AMU)	1989. 2	알제리·리비아·모리타니아·모로코·튀니지(5)	- 지역안정 보장 및 정책조율 - 점진적인 상품 및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무역 도입
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1994. 12	앙골라·부룬디·코모로·콩고·지부티·이집트·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케냐·마다가스카르·말라위·모리셔스·나미비아·르완다·세이셸·수단·스와질란드·우간다·잠비아·짐바브웨(20)	- 지역통합을 통한 경제번영 - 무역관세 및 장벽제거를 통한 교역증진 - 역외공동관세 도입 - 경제·통화통합 통한 궁극적인 정치연맹 지향
The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ECCAS)	1983. 10	부룬디·카메룬·중앙아프리카·차드·콩고·적도기니·가봉·르완다 (11)	- 지역경제협력 증진 - 공동시장 설립
The Economic	1975. 5	베냉·부르키나파소·코트	- 경제·통화동맹 설립 위한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디브와르 · 감비아 · 가나 · 기니 · 라이베리아 · 말리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세네갈 · 시에라리온 · 토고 (15)	경제·사회·문화활동 협력증진 -경제안정 유지 및 강화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1992. 8	앙골라 · 보츠와나 · 콩고 · 레소토 · 말라위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나미비아 · 세이셸 · 남아공 · 스와질란드 · 탄자니아 · 잠비아 · 짐바브웨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조화 -지역평화와 안보 유지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경제통합
The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	1996. 3	에리트리아 · 에티오피아 · 지부티 · 케냐 · 우간다 · 수단 · 소말리아 (7)	-역내 분쟁예방 및 해결 -무역·투자 장려 위한 거시경제정책 및 프로그램 조화
The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CEN-SAD)	1998. 2	베냉 · 부르키나파소 · 중앙아 · 차드 · 지부티 · 이집트 · 에리트리아 · 리비아 · 말리 · 모로코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세네갈 · 소말리아 · 수단 · 토고 · 튀니지 · 잠비아 (18)	-회원국간 협력 강화
The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UEMOA)	1994. 1	베냉 · 부르키나파소 · 코트디브와르 · 기니비소 · 말리 · 니제르 · 세네갈 · 토고 (8)	-회원국의 경제·금융활동 경쟁력 강화 -거시경제정책 수렴 -공동시장 창설
The Mano River Union (MRU)	1973. 10	기니 · 라이베리아 · 시에라리온(3)	-관세연합 설립
The Central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CEMAC)	1994. 3	카메룬 · 중앙아 · 차드 · 콩고 · 적도기니 · 가봉(6)	-경제·통화동맹의 틀내에서 회원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The Economic Community of Great Lake Countries (CEPGL)	1976.9	부룬디 · 콩고 · 르완다(3)	-지역경제협력 및 통합 촉진
The East African Community (EAC)	1999.11	케냐 · 우간다 · 탄자니아 (3)	-경제·통화·정치연합
The Indian Ocean Commission (IOC)	1982.12	코모로 · 마다가스카르 · 모리셔스 · 세이셸 · 프랑스(5)	-지역경제협력 증진
The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1969.12	보츠와나 · 레소토 · 나미비아 · 남아공 · 스와질랜드(5)	-자유무역 촉진 -관세분야 협력

제2장 거점시장 선정 및 시장특성

1. 거점국가 선정

-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 경제규모, 경제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아프리카시장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여기서는 기초적인 단계로서, 아프리카 각국이 갖는 상대적 위상 즉, 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시장성 비교를 통해 FTA 체결 대상국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음.
- 분석방법으로는 각 변수별로 점수의 최고 값을 100으로 지수화하여 상대평가한 후, 지수화된 각 변수를 합산하여 다시 최고 값을 100으로 하여 재환산한 값을 부여하였음. (도입된 변수는 GDP · 인구 · 1인당 GDP · 수출입규모 · 소비규모 ·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7개의 경제 변수)
- 상기 변수들을 지수화하여 국가별로 상대평가한 시장성 분석결과, 예상대로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모로코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들 경제국들의 아프리카내 경제적 위상은 수입시장 규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 아프리카 5대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는 남아공 · 이집트 · 모로코 · 나이지리아 · 알제리가 아프리카 전체수입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신장률에서도 알제리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제국 가운데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국가들은 해당권역내에서 물류 및 경제적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동부아프리카협력체(EAC) 등 지역통합체를 사

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어 자체시장은 물론 인근지역으로의 진출거점 또는 지역본부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시장임.

2. 거점국가별 시장특성

가. 남아공

-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부국 남아공은 자체시장성은 물론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 및 핵심적 물류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남아공은 또한 SADC 등과 같은 역내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역내간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거점기지로도 활용가치도 높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대륙 경제규모의 30%, 수입시장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부국이자 아프리카제국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대신흥시장임.
 -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상품이 사실상 남아공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신규 시장진입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일단 시장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는 일정한 시장점유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남아공은 경제적 어려움을 세계경제권으로의 편입을 통해 그 해법을 찾고 있음.
 -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FTA를 통한 시장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2001년 9월에는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역내 FTA 체결(2008년 출범 목표)을 위한 전단계로 “무역에 관한 SADC 의정서(protocol)”를 체결하였음.
 - SADC는 남아공(1994년 8월 가입)을 비롯하여 남부아프리카 14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내 경제규모와 수출의 70% 이상을 남아공이 차지하고 있음. SADC는 아프리카 경제블럭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크며 역내교역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SADC 역내 상품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70년	'80년	'90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483	617	1,630	3,373	3,963	4,471	3,865	4,224	4,380	3,626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3.

- FTA를 통한 시장확대 정책은 아프리카 역내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경제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 1999년 10월에는 EU와의 FTA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남아공 수출품의 95%가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됨.
 - 미국과의 FTA 체결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2003년 6월에는 FTA를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오는 2004년말까지 협상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나아가, 남아공은 EU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으로의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현재 인도, 이집트, Mercosur 등 주요 신흥경제국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표 3> 남아공의 FTA 논의동향

	주요 내용
남아공-EU	· FTA 협정완료(1999.10 서명) · EU는 향후 10년 내에 남아공 수출품의 95%에 대해 관세철폐(남아공은 12년 내에 EU 수출품의 86%에 대해 관세철폐)
남아공-미국	· SACU(남아공·보츠와나·레소토·나미비아)-미국간 FTA 논의 개시(2003년 6월) · 2004년 말 협상완료 목표
아공-EFTA	· SACU-EFTA간 FTA 논의개시(2003년 5월) · 2005년 1월 FTA 출범 목표
SADC 역내 FTA	· 남아공 주도하에 SADC 역내 FTA 논의 활발 · FTA 창설을 위한 무역의정서(Trade Protocol) 체결(1996년) · 2008년 FTA 출범 목표
남아공-이집트	· 양국 정부간 FTA 예비회담 개최(2004년 2월)
기타	· 중국, 인도, MERCOSUR 등과 FTA 논의예정

주: SACU는 남아공을 위시하여 인근 5개국간의 관세동맹. EFTA(유럽자유무역지역: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아이슬랜드)

자료: EIU 등 각종 자료

나. 이집트

- 북부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이집트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역내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수출거점기지로 활용할 가치가 높음.
- 이집트는 900억 달러의 GDP규모로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구매력(1인당 GDP: 11,400억 달러)에서도 아프리카 전체평균(677달러)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인구규모면에서도 나이지리아(1억 2,400만명)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인구대국으로 최근 몇 년간 5%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지속적인 개혁정책과 무역 및 경제자유화 조치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인플레이 억제, 통화안정, 외환보유고 증대 등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집트의 수입시장 규모는 무역자유화 진전에 따른 관세인하와 수입금지 품목의 축소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이집트는 국내 제조업기반의 부재로 주종 수출품이 원유 및 관련제품, 원면 등 일차산품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생필품과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피혁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입선(1999/2000년 기준)은 EU가 42%의 비중으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가운데, 미국(19%), 아프리카·아시아(18%), 아랍제국(4%) 등의 순을 나타나고 있음.
- 공업화 진전에 따른 수입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며 중동·아프리카지역의 공산품 공급기지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시장임.
 - 이집트는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및 부품, 섬유 및 기계류 등 공산품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높은 수입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확대 여지가 큰 유망신흥시장임.
 - 더욱이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경우 수출확대의 가능성

이 높은 대형시장임.

다. 모로코·알제리

- 모로코와 알제리는 북부 아프리카지역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마그레브지역(3개국)은 인구 6,800만, GDP 1,000억 달러, 수입시장규모 270억 달러 등으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음.
- 모로코는 아프리카대륙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규모는 100억 달러 수준으로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수입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부존자원이 없어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지만 2,8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소비시장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혁·개방화로 수입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잠재적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원유를 비롯하여 자동차, 화학제품, 밀, 설탕 등이 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저가 경공업제품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서, 그리고 자동차 및 자본재는 유럽과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
- 모로코정부는 수입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정보통신 육성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로코를 중동·아프리카진출의 허브(hub)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통신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휴대폰 등 정보통신 제품 및 통신장비는 물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전략이 필요함.
- 알제리는 남아공, 이집트에 이어 아프리카 3대 경제대국으로, 시장규모(GDP)와 인구규모(3,000만)면에서 마그레브지역 가운데 가장 큰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석유자원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낙후성,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에 의한 사회폭력사태와 정치적 불안,

부정부패 등이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원유 및 천연가스 등 광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저 소득수준의 신흥유망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 WTO 미가입국인 알제리는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이나, 지속적인 공업화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수출유망 대상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알제리는 원유 및 가스수출이라는 안정적인 외환수입원을 바탕으로 식품, 원자재, 기계류 등 소비재 및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력 수입시장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EU와 미국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라.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대륙의 최대 인구대국(1억 1,000만)으로 경제규모면에서도 남아공에 이어 제2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내수시장은 물론 인근 서부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시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음.
-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1999년 5월 민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화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임.
- 군사쿠데타 등 그 동안의 정치적 불안과 종족 및 종교 분쟁, 만연한 부정부패³⁾,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운용 등으로 현재 국민소득(1인당 GDP)은 4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세계 20대 최빈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1999년 5월 역사적인 민선정부 탄생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개방화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또한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과 원유 및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1위, 세계 제7위의 산유국으로서 기타 산유

3) 독일의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01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 세계 최고의 부정부패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원유수입을 바탕으로 거대 시장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개발추진에 따라 상품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입대체산업의 부재로 기초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상품수입에서는 공업용 원자재, 건설 및 운송장비 등 생산시설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막대한 상품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한 국내산업 기반으로 인해 기초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공업용원자재, 기계류, 건설 및 운송장비 등 생산시설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입선은 영국 등 EU국가들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상품의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은 컴퓨터, 중고자동차, 버스, 의약장비, 직물, 밀 등을 대량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컴퓨터 시장점유율은 80% 가까이 이르고 있음.

□ 방대한 인구규모와 개발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FTA 등 시장개척 노력여하에 따라 대량수출이 기대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음.

마. 케냐

□ 케냐는 동부아프리카국가 중 가장 선진화된 경제구조와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간다와 탄자니아 등 인근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거점지역으로서도 중요한 시장임.

□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중·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케냐는 동부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선진화된 경제구조와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아직까지 경제적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금융시장과 제조업 기반이 동부아프리카국가들 가운데 가장 발달해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사업 및 진출여건과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1963년 독립 이후 주변 동부아프리카 제국과는 달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일찍이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케냐는 동부아프리카지역의 중심국으로서 동부아프리카지역공동체(EAC: East Africa Community) 등 지역경제협력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EU와는 로메협정을 통해特惠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EU시장은 물론 동부아프리카 진출거점으로서 활용여지가 높음.

- 특히, 케냐에 대한 시장개척 강화는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경제자유화로 성장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우간다, 탄자니아 등 인근국가들에 대한 진출거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이유로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경쟁국들이 정책적 원조제공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케냐를 전진기지로 하여 인근 동부아프리카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케냐는 도로·항만(몸바사)·철도 등 인프라시설이 탄자니아, 우간다 등 인근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동부아프리카지역의 관문이자, 진출거점지역으로서 중요성이 있는 시장임.

□ 케냐의 경제력과 구매력은 낮은 수준이나 나름대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유망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1.6%대에 머물고 있으나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할 경우 시장확대의 여지가 충분한 시장임.

3. 수입상품구조 분석

가. 수입상품 구조

□ 상기 거점국가 5개국의 상품수입에 있어 구조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산품(SITC 5~8) 가운데에서도 차량, 기계·장비, 전자·전기제품 등이 주력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9개 품목군 중 30%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 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랙아프리카(Black Africa) 최대

의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경우, 기계 및 운송장비 비중이 총수입의 33% 이상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차량이 가장 큰 비중을 형성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막대한 원유收入을 바탕으로 한 개발전략의 추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는 동시에 농업부문의 낙후로 식량수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집트 역시 여타 아프리카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조업기반의 부재로 생필품과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피혁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의 수입비중은 26%로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업화 진전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최근 증가율이 9%대를 상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아프리카대륙 최대 경제대국 남아공의 경우 역시 금, 다이아몬드 등의 귀금속과 철을 비롯한 광산물 및 그 가공품, 농산물 등의 일차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기계류 등의 자본재와 운송장비, 화학제품,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음.

- 남아공의 상품수입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로 40% 가까이 이르고 있음.

□ 알제리는 원유 및 가스수출이라는 안정적인 외환수입원을 바탕으로 식품, 기계류 등 소비재 및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입은 역시 기계 및 운송장비가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최대의 밀 수입국으로서 식량의 수입비중이 26%에 이르고 있음.

<표 4> 아프리카 5개국의 공산품 수입비중 및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

SITC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공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5	18.5	-2.5	12.3	5.0	11.7	-2.3

6	18.3	3.3	19.1	4.9	12.5	-3.1
7	33.1	-5.1	26.1	9.0	38.7	-6.4
8	4.8	-1.4	3.7	12.6	8.5	0.9
9	0.6	3.3	2.8	835.0	10.0	30.7
SITC	알제리			케냐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5	10.7	-2.8		16.2	-2.1	
6	18.7	-7.2		14.7	-3.9	
7	31.6	-2.0		31.3	-2.6	
8	4.6	4.2		5.8	11.2	
9	0.0	-70.9		0.1	50.6	

주: 최근 5년간(1995~1999년) 합계기준이며 연평균증가율임. SITC 분류: 5(화학물 및 관련제품) · 6(재료별 제조제품) · 7(기계 및 운수장비) · 8(기타 제조제품) · 9(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자료: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나. 수입선 구조

- 상품수입에 있어 구조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입선이 구식민종주국인 서유럽국가와 미국 등 서방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를 크게 대별해 보면 알제리와 케냐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일차산품 수입의 경우 미국이 제1의 수입선에 위치해 있으며, 공산품 수입시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과거 식민종주국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
 - 알제리의 경우에는 구식민종주국인 프랑스가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제1의 수입선에 위치해 있어 종속적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케냐의 경우에는 남아공과의 교역확대로 아프리카 역내수입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제1 또는 제2의 수입선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상품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중국은 이집트와 알제리의 기타 제조상품(SITC 8) 수입시장의 10%대를 차지,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한국상품은 분석대상 5개국의 전품목군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집트 공산품수입의 경우 독일상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SITC 4)가 36%로 제1의 수입선을 차지하고 있음.
- 기타 제조상품(SITC 8)에서는 독일(15%)에 이어 중국이 14%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자본재수입이 주류를 이루는 무역구조상 남아공의 수입대상국 역시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역시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SITC 4)에서 36%로 제2의 수입선을 점하고 있음.
 - 기타 제조상품(SITC 8)의 경우 미국이 18%로 최대의 수입선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초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이후 미국상품의 수출확대에 따른 것임.
 - 알제리의 최대 수입시장은 단연 과거 식민지배국인 프랑스로서, 특히 공산품의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이며, 모로코, 튀니지 등 인근 마그레브국가와의 교역비중은 1~2%대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케냐 수입시장의 경우, 상기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 물론 전통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등 EU 국가들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품목의 경우 역내 수입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식품(SITC 0) 및 재료별 제조제품(SITC 6)의 경우 남아공과의 지속적인 교역확대로 SACU이 각각 18%, 14%로 제1의 수입선에 위치해 있음.
 -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들 수 있음.
 - 특히, 일본은 케냐의 공산품수입 가운데 기계 및 운송장비(SITC 7), 재료별 제조제품(SITC 6)에서 각각 제1, 제2의 수입선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케냐와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 역시 기타 제조상품(SITC 8) 수입의 7%를 차지, 영국(31%) 다음으로 제2의 수입선에 위치해 있음.

<표 5> 아프리카 5개국의 상품별 수입선 구조

	SITC 코드	제1수입선		제2수입선		韓國
		국명	비중	국명	비중	비중
이집트	0	미국	40.0	호주	7.9	0.2
	1	미국	31.5	브라질	10.1	0.0
	2	스웨덴	15.6	핀란드	12.8	0.5
	3	불명	36.7	사우디	21.6	0.0
	4	말레이시아	35.7	아르헨티나	13.0	0.0
	5	독일	12.3	사우디	8.9	2.6
	6	러시아	9.2	독일	7.6	2.6
	7	독일	17.2	이탈리아	12.5	3.8
	8	독일	14.9	中國	13.6	2.1
	9	불명	90.8	스위스	8.7	0.0
나이지리아	0	미국	26.0	네덜란드	13.6	0.0
	1	미국	53.9	영국	24.4	0.3
	2	터키	12.5	브라질	8.8	0.9
	3	독일	13.6	스페인	12.8	0.3
	4	미국	47.0	영국	26.5	0.0
	5	영국	15.5	中國	12.6	3.4
	6	영국	12.4	독일	11.1	1.3
	7	미국	18.0	영국	13.9	0.9
	8	영국	19.2	미국	13.0	3.3
	9	프랑스	23.9	영국	19.4	0.3
남아공 (SACU)	0	미국	17.2	아르헨티나	7.8	0.2
	1	영국	43.2	짐바브웨	16.1	0.0
	2	호주	27.0	미국	9.3	0.5
	3	불명	43.8	이란	23.5	0.2
	4	아르헨티나	38.4	말레이시아	36.0	0.0
	5	독일	16.6	미국	16.3	1.8
	6	영국	14.6	독일	12.7	3.4
	7	독일	18.9	미국	16.0	2.4
	8	미국	17.9	영국	13.2	1.1
	9	불명	37.4	日本	27.9	0.0
알제리	0	프랑스	19.8	캐나다	15.8	0.0
	1	이탈리아	20.3	그리스	12.9	0.0
	2	핀란드	21.6	오스트리아	16.1	0.0
	3	시리아	26.5	미국	16.2	0.0
	4	미국	28.6	아르헨티나	16.1	0.0
	5	프랑스	44.5	스페인	12.9	0.5
	6	프랑스	17.0	스페인	12.7	1.1
	7	프랑스	27.7	이탈리아	14.7	4.0
	8	프랑스	25.6	中國	12.7	1.1
	9	스위스	33.5	프랑스	21.9	0.0
케냐	0	SACU	17.7	아르헨티나	12.4	0.0
	1	영국	24.4	SACU	22.7	0.3
	2	영국	18.1	SACU	8.7	3.1

	3	UAE	45.6	사우디	25.7	0.1
	4	인도네시아	41.8	말레이시아	31.8	0.5
	5	영국	11.7	SACU	10.6	1.9
	6	SACU	13.5	日本	10.7	2.0
	7	日本	19.6	영국	18.1	1.4
	8	영국	31.3	印度	6.9	1.4
	9	영국	97.8	UAE	0.8	0.0

주: 5년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자료: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제3장 아프리카와의 FTA 추진검토

1. FTA 추진 타당성

가. EU시장 우회진출

- 아프리카국가들은 EU와 로메협정, 협력협정 등을 통해 각종 특혜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EU시장 진출거점으로서 활용여지가 높음.
 - 로메협정은 지난 1975년 2월 아프리카 서부 토고공화국 수도 로메(Lome)에서 유럽연합(EU)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와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회원국간의 경제발전 원조협정으로 1976년 4월 발효되었음.
 - 이 협정은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의 개정과 함께 EU측에서는 15개국, 그리고 ACP 가입국은 71개국으로 참여국이 증가하였음.
 - 로메협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인 이들 나라에 자유로운 생산품 수출을 허용했고 농산물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1990-95년의 5년 동안 원조로 약 15억 달러를 제공했음.
- 2000년 6월 아프리카 서부 베냉의 항구도시 코토누에서 체결된 코토누 협정은 EU와 78개 ACP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협정으로 로메협정을 대체한 것임.
 - 코토누 협정은 개발, 빈곤퇴치, 무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규정하며, 분쟁예방, 인권존중, 민주화 등 공동 관심사

를 포함하는 정치적 대화를 제시하였음.

- 또한 시장진입에 기초한 무역관계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대정부 파트너쉽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프로세스로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그 전신이었던 로메협정으로부터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EU는 남아공(2000.1), 이집트(2001.6), 알제리(2002.4월) 등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위 “Barcelona Process”를 통해 EU-지중해권 국가간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추진하고 있음.

□ 아프리카지역 가운데 특히, 마그레브는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EU와 공산품의 관세면제 등 무역특혜조치를 포함한 협력협정을 맺고 있음.

- 양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밀접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EU시장이 마그레브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으로서 또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의 수입선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여건은 우리의 대 EU 수출확대를 위한 우회수출기지로서 마그레브지역이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시장에의 접근 용이성에 비추어 볼 때 마그레브에 대한 시장확대는 마그레브 역내시장 보다는 EU에 대한 우회수출을 겨냥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미국시장 진출: AGOA 활용

1) AGOA의 의의

□ 아프리카성장기회법(이하 AGOA)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의 對 아프리카 종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빈곤, 기아, 전쟁, 질병 등 고질적인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한 일방적 원조보다는 미국과의 통상증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1998년 3월 AGOA 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상원을 통과하였고 미국 내 관련 산업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2000년 5월 하원을 통과하였음. 그리고 동 법은 부시의 공화당 정부에 의해 확대 계승되었음.
- 동 법은 미국이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와 종합적인 무역투자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동 법은 미국과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는 사하라이 남아프리카 국가들(SSA)과 포괄적인 자유무역을 가능케 하였음.
- 또한,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제, 통상관련 제도와 사고방식을 개방경제체제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합리적인 무역상대자'를 창조해 내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AGOA는 미국정부가 개혁 및 개방화를 추진하는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해 대외채무의 획기적 탕감,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미국시장 접근 확대, 인프라건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AGOA의 주요 내용

- AGOA는 미국의 아프리카 지원정책을 교역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에 그 목표를 두고 사하라이남 국가들에 대해 섬유 등 일정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등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동 법에는 수혜국가의 자격 요건, 무관세 혜택 품목, 의류산업에 대한 추가 양허사항, 미국-사하라이남아프리카 통상경제포럼 구성, 그리고 해당 국가의 자격 요건 취득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AGOA의 발효로 1984년부터 시행되어 온 GSP 적용품목(4,650개)에 더해 1,800개 이상의 SSA(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산 품목이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음.
- AGOA는 직물-의류우대조치(textile and apparel benefits) 관련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과 해당 아프리카국가들에서 생산된 원사와 직물을 이용하여 만든 섬유 및 의류제품에 한해서 무관

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단, 해당 아프리카국가들에서 생산된 원사제품의 경우 미국의 총 의류수입액의 3.5%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상한이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함께 최빈국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데 1998년 현재 1인당 GNP가 1,500달러 미만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30일까지 실과 원사의 원산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즉, 제3국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음.
- 현재 이 규정에 속하는 국가들은 총 28개국으로서 보츠와나, 가봉,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이셸, 그리고 남아공을 제외한 기존의 AGOA 수혜 국가들이 모두 이 기준에 속함.

3) AGOA의 효과

- 미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도 아프리카 수혜국(38개국)의 AGOA에 따른 대미 수출액은 91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0% 증가세를 나타냈음.
- AGOA에 따른 아프리카국가들의 대미 수출증진 효과는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AGOA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AGOA에 따른 남아공의 2002년도 대미 수출 증가율은 45%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음. 또한, AGOA 특혜적용물품의 대미 수출액은 남아공의 전체 대미 수출액의 약 32%를 차지하였음.

2. 모로코와의 FTA 추진

가. 모로코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해 있는 모로코는 유럽과 북부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대륙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유망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모로코시장에 대한 진출강화는 모로코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알제리, 튀니지 등 인근 마그레브지역은 물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프랑스로부터 오랜 기간 식민통치를 받아 온 마그레브지역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유럽지역과 특별한 역사적·지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EU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우회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마그레브지역은 인구, GDP, 교역규모 등에 있어 무시하지 못할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우수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있어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 또한, 마그레브지역은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EU와特惠관세협정 등을 통해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지대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EU시장 접근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음.
- 2000년 3월에는 2012년까지 FTA 실현을 목표로 공산품 관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로코-EU간 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된 바 있음. 이는 곧 모로코의 EU시장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임.
- EU는 그 동안 중동·북아프리카국가들과 이와 유사한 협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모로코와의 동 협력협정은 팔레스타인, 튀니지에 이어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3번째로, 공산품을 크게 5개 품목군(자본재·원자재·부품·국내제조 공산품·국외제조 공산품)으로 분류, 연도별 수입관세 인하 또는 철폐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원자재 및 부품, 모로코에서 생산되지 않은 공산품은 2000년 3월부터 매년 25%씩 관세율이 인하되어 오는 2004년에는 완전 무관세수입이 이루어짐. 그리고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소형자동차, 고무·플라스틱제품, 섬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에는 국내제조업 보호를 위해 최소한 200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03년부터 10년간에 걸쳐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됨.

나. 모로코의 수입시장 특성 및 규모

- 모로코는 경제규모와 수입수요가 여타 신흥경제국에 비해 낮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공업화정책에 주력하고 있어 수입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잠재적 시장임(인구: 6,800만, GDP: 1,000억 달러, 수입 시장규모: 270억 달러)
- 모로코는 GDP 350억달러, 상품수입 100억달러의 경제규모에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800만 이상의 인구를 지닌 시장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혁·개방화로 수입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잠재적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모로코의 GDP와 교역규모는 한국의 10% 이하이나 개도권에서는 비교적 중상위권에 속하며,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중소득국가군에 속하고 있음.
- 모로코의 연간 수입규모는 100억불을 웃돌고 있어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수입시장임.
- 일반 소비재에서부터 기계류 등 자본재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띄고 있으며, 원유를 비롯하여 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6> 모로코의 교역상품 구조

수 출(fob)			수 입(cif)		
	금액(백만 \$)	비중(%)		금액(백만 \$)	비중(%)
소비재	2,903	38.7	기계·장비	2,755	25.5
반제품	1,411	18.8	소비재	2,480	23.0
식음료·담배	1,404	18.7	반제품	2,228	20.6
광물	574	7.5	에너지	1,331	12.3
에너지	203	2.7	식음료·담배	1,177	10.9
원자재	186	2.5	원자재	761	7.0
총수출	7,509	100.0	총수입	10,809	100.0

주: 1999년

자료: EIU, Country Report: Morocco.

- 모로코의 교역선 구조를 보면 전통적으로 유럽지역이 절대적인 비중(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7> 모로코의 국별 교역구조 (2000년 기준)

(단위: %)

수 출		수 입	
프랑스	28.8	프랑스	24.8
스페인	10.6	스페인	10.6
영 국	8.6	독 일	5.8
독 일	6.1	영 국	6.8
인 도	5.0	이탈리아	5.7

자료: EIU, Country Report: Morocco, 2001.8.

- 모로코는 여타 아-중동 국가들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와의 FTA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여타 국가들에 비해 수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표 8> 모로코의 관세율 비교

	연도	전상품	일차상품		공산품	
		단순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알제리	1998	24.6	18.1	14.6	24.5	18.7
이집트	1998	20.5	22.5	7.5	20.2	17.5
요르단	2000	22.8	26.2	16.9	22.3	19.8
레바논	2000	17.9	23.9	24.3	16.9	16.0
리비아	1996	27.3	24.8	9.6	27.7	25.7
모로코	2000	33.6	42.4	27.1	32.3	25.3
오만	1997	4.8	4.0	3.1	4.9	5.0
사우디	2000	12.3	11.9	7.9	12.4	10.9
튀니지	1998	30.0	28.7	21.2	30.2	30.2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Arab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2-2003.

다. 모로코의 성장산업

1) 통신장비

-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경제전문기관인 EIU는 모로코를 아프리

카·중동지역에서 가장 자율적인 통신규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同지역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모로코의 통신시장이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02년 1월부터는 현재 모로코 국영통신공사(MT)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유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모든 통신서비스부문에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임.
- 모로코 통신부문의 자유화와 경쟁체제는 통신인프라 개발추이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바, 1993년 당시 83만 정도에 머물렀던 통신회선 수가 1999년 말에는 146만 회선으로 획기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특히,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2000년 4월 제2 이동통신(GSM) 사업자 선정에 따른 복수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 質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1999년초 15만명에 불과하던 이동전화가입자 수가 2001년 초 현재 300만명을 돌파, 세계 최고의 이동전화가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렇듯, 모로코의 정보통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연 25%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어 통신장비에 대한 시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0년 현재 정보통신장비 시장규모는 10억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은 2,7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문 집중육성을 위한 모로코정부의 정책적 노력,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가입자, 그리고 컴퓨터보급률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보통신분야는 머지않아 모로코경제를 이끌 주력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전력생산장비

- 모로코 전력공사(ONE: National Office of Electricity)는 산업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2010년 말까지 전력 총생산능력을 7,067MW까지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생산프로젝트(1999-2010년)에 착수하였는바, 이에 따른 전력설비 및 장비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 2000년 말 기준 모로코 전력장비 시장규모는 3억 7천만 달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도시화와 시골지역의 전력수요 확대, 전력생산 확대 및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바, 발전설비 수요증가율이 향후 3년간(2000-2003년) 3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력공사는 특히, 시골 낙후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사업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업체의 참여를 적극 허용하고 있음.
- 모로코에는 현재 50가구 이하의 시골마을이 4만여 곳(인구규모로는 1,2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80%) 지역은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음. 이 같은 모로코 시골지역의 전력공급 사정은 인근 알제리(15%), 튀니지(20%)에 비해 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임.
- 전력공사는 오는 2012년까지 연간 10만 가구씩 총150만 가구(900만명)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소위 "PERG(Programme d'Electrification Rurale Global)"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전력장비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 환경관련장비

-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급속한 도시화로 쓰레기와 자동차오염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모로코 정부당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고 있는바, 관련산업 즉, 도시지역의 쓰레기 폐기물 및 하수처리산업관련 장비수출 및 투자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0년 현재 환경산업 관련장비 시장규모는 2억 2,4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유럽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모로코정부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9-2003년간 약 6,700만 달러를 환경예산으로 배정, 편성하였음. 비록 그 규모는 적은 편이나 이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수자원 개발장비

- 모로코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최소한 도시지역의 96%, 농촌 80% 지역에 식수공급망을 구축하고, 하수처리능력을 완비한다는 목표下에 향후 5년(2000-2004년)에 걸쳐 24개 대도시, 50개 중소도시, 85개 소도시에 하수처리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바, 하수처리 설비 및 정화장비 등 관련 설비장비의 수요증가가 예상됨.
- 모로코의 수자원장비 시장규모는 1998년 2억 6천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현재에는 19억달러로 불과 2년 동안 무려 7배 이상 증가하였음.
- 수자원관리청(ONEP: National Office of Potable Water)은 同 5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식수개발에 1억 5천만달러, 식수공급망 확충에 1억 달러 등 연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임.
- 여기에 모로코정부는 2010년까지 농촌지역 식수공급을 위해 15억 달러의 특별예산을 배정할 방침임.
- 농촌인구의 32%가 식수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로코정부는 농촌지역에 대한 위생적인 식수공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바, '농촌지역 식수개발프로그램(PAGER)' 등을 통해 2003년까지 농촌인구의 80%까지 상수도망을 확충할 계획임.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아프리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으로서의 많은 제약요인과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의 시장진출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인 요인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우리의 이니셔티브 부족도 아프리카 시장진출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신흥경제권의 주변국으로 머물며 시장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프리카국가들이 그 동안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혁 및 개방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 또한 협소한 시장규모를 극복하고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유무역권 형성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개발의 원동력과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모색하고 있음.

-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아프리카경제의 글로벌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프리카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FTA 등 시장진출 노력을 기울일 경우 볼 때 시장 확대가 가능한 미개척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시장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국가와 같은 미개척 지역과의 FTA 체결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나아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시장진출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를 전략적 거점시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 아프리카는 미국과 EU의 경제적 특혜조치로 인하여 유럽과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임.

- 시장의 안정성 및 전략적 가치 등 제반 경제적 요인을 감안할 때 FTA 우선대상국으로는 모로코를 들 수 있음.
 - 모로코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시장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임. 또한 모로코는 이스라엘 문제나 이란, 이라크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점도 있음.
 - 더욱이 모로코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유럽지역과 특별한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특혜관세협정 등 밀접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FTA 체결시 한국상품의 EU시장 접근도 용이하게 됨.
 - 모로코와 EU간의 협력협정이 2000년 3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됨으로써, 향후 12년간 공산품의 단계적 관세인하 과정을 거쳐 2012년에는

양 지역간 FTA가 탄생하게 됨.

- 모로코는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유럽국가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모로코시장 진출강화는 마그레브지역은 물론 주변 아랍지역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한국과 모로코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FTA 체결시 한국의 수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즉, 모로코의 주력 수입상품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철강, 자동차, 컴퓨터 등 정보통신 관련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모로코정부의 정보통신 육성정책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FTA 수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모로코와 우리의 교역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일차산품을 수입하는 남북교역의 형태를 강하게 띄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모로코는 제조업 발전단계가 낮아 전반적으로 우리와 경합관계에 놓일 만한 상품은 없음.

□ 모로코는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이 일정규모 이상 확대되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장임. 그러나 상당한 인구를 지니고 있고 무역규모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공업화도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모로코는 EU와의 경제적 특수관계,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직접투자를 통한 유럽 우회수출기지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지니고 있음.
- 더욱이 모로코는 아-중동국가들 중에서 기후와 자연조건이 양호하고 문화도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어 우리기업들이 아-중동지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도 덜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미개척 신흥시장인 모로코를 우리의 협력파트너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향후 FTA 등 협력확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것임.